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8호 【루계 제2569호】

주체108(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음력 10월 27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와 새로 건설한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와 새로 건설한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황금해의 고장, 단풍호의 고향으로 늘 정답게 부르시는 정든 수산사업소인 8월25일수산사업소를 먼저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두에 마중나온 수산사업소 책임일군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며 어로공들과 가족들의 안부를 따뜻이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수산사업소는 수산이라는 말이 영영 잊혀질번 했던 시기 우리 당 수산정책을 옹위해 들고일어난 수산혁명의 불씨사업소, 넓고넓은 바다에 황금단풍을 물들인 단풍호고향사업소로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 첫자리에 놓여있는 단위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찾아온것은 인민군대 수산부문 사업정형을 료해하던 중 이곳 수산사업소에 건설하게 되여있는 물고기가공장건설이 진척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보고를 받고 현지에서 직접 료해대책하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수산사업소 지배인은 욕심이 지내 커서 매번 최고사령관에게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고 많은것을 제기하는데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군이라고, 최고사령관을 돕자고 부리는 욕심이고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자고 부리는 욕심이며 군인들에게 푸짐한 식탁을 마련해주자고 부리는 욕심인데 그 이상 애국적이고 충성스러우며 바른 욕심이 어데 있겠는가고, 그래서 이 동무에게는 더더욱 정이 가고 이 동무가 일하는 사업소 어로공들과 종업원들에게도 더 정이 가는것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또한 수산사업소에서 번뜻하게 꾸려놓은 물고기가공장건물에 설비만 들여놓으면 제일 현대화된 수산사업소로 변신하게 된다는데 당에서 실태를 알았으니 힘있게 밀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수산사업소에서는 계속 수산혁명의 불길을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한다고, 동무네 사업소는 언제나 우리 당 수산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들이 되여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주시며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물고기가공장에 이어 종전에 있던 물고기가공장과 랭동저장고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물고기보물산을 높이 쌓아가고있는 이곳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과 가족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 지난 6년간 이 사업소가 당의 령도밑에 수산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걸어온 발전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8월25일수산사업소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새로 건설한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요란한 물고기가공사업소가 일떠선것을 보니 그때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제는 아무리 물고기사태가 나도 얼마든지 가공처리, 저장할수 있게 되였다고, 부대수산사업소들의 가공처리능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여 이제는 가족들, 종업원들이 힘든 일에서 해방되고 물고기의 질도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신선한 물고기를 받아안고 우리 군대장병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고기하륙설비들과 수송콘베아를 통하여 랭동 및 가공장으로 사태가 난듯 쏟아져 들어가는 물고기들을 보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랭동저장고들마다 차곡차곡 높이도 꽉 들어찬 물고기들을 보시면서 동무들, 내가 이미전에 물고기랭동블로크들을 보고 금괴를 올려쌓은것 같다고 말한적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이상 적중한 비유가 없을것 같소, 그렇지 않소라고 기쁨에 넘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자고 투쟁하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황금해의 력사가 계속 창조되는것만큼 반갑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고, 올해는 농사도 대풍인데 수산도 대풍이 들겠다고 거듭거듭 기쁘신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군인들의 식생활을 위해서는 아까울것도, 주저할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과 우리 지휘성원동무들을 믿고 조국보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맡긴 이 나라 부모들의 믿음과 기대를 잊지 말고 그에 보답하기 위하여 군인생활향상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더 많이 찾아하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만들어나가는데서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지혜와 정열을 다해나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인민사랑으로 주렁지는 행복의 열매들

인민생활문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돌보시는 국사중의 제일국사이다.

신년사를 하시거나 일군들에게 이르실 때 그리고 국가의 중요회의를 하실 때에도 그이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인민생활과 관련한 말씀이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에는 인민들이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애민헌신의 세계가 어리여있다.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자신이 돌보셔야 할 천사만사의 국사들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국사로 내세우시기에 낮이나 밤이나, 춘하추동 사계절 공장과 건설장, 협동전야를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자욱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이께서는 최근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온천을 인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발기에 따라 새로 개발되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이 어느덧 마감고비에 이르렀다.

지난 10월에도 건설장을 찾으시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는 건축형식과 내용이 새롭고 독특할뿐아니라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시며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손색없이 꾸려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근로자휴양호동들과 료양호동들, 려관들과 실내온천장, 야외온천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우리 당이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 새로운 문화정서생활분야를 안겨주기 위해 건설하는 온천치료봉사기지이며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라고, 사소한 부족점도 허용할수 없다고 하시며 휴양지의 완공과 운영관리에서 나서는 세부적인 과업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지시하시였다.

지난해 8월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찾으시고 온천관광지구건설의 설계도를 펼치신 때로부터 여러차례 건설장을 찾으시고 건설과 관련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사회주의문명의 새 화폭을 펼치게 될 완공의 날을 가까이하고있는것이다.

8월25일수산사업소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는 수산기지이다.

이 땅우에 《이채어경》이라는 사회주의바다풍경과 더불어 펼쳐진 황금해의 력사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례지게 하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고찾으신 8월25일수산사업소와 하나로 잇닿아있다.

인민들의 윤택한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 8월25일수산사업소와 새로 건설된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수산사업소를 찾으시고 새로 건설한 물고기가공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고기보물산을 높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랭동 및 가공장에 즐비하게 들어찬 기계설비들을 보시면서 고기 절반, 기계 절반이라고, 마치 물고기바다, 기계바다를 보는것만 같다고 하시며 공정별로 물고기가공취급과 설비들의 가동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랭동저장고들마다 차곡차곡 들어찬 물고기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내가 이미전에 물고기랭동블로크들을 보고 금괴를 올려쌓은것 같다고 말한적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이상 적중한 비유가 없을것 같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몇해전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랭동저장고마다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물고기를 보시고 마치 금괴를 무져놓은것 같다고 하시였었다.

5월27일수산사업소와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실 때에는 사업소의 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린내,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맡으니 만시름이 풀린다고, 정말 희한한 풍경, 기막힌 풍경이라고 기뻐하신 그이이시였다.

수산기지들을 현지지도하시는 나날 물고기대풍, 물고기사태를 마련하는것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해마다 만선의 배고동을 더욱 높이 울려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황금해력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게 되였다.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세운 급동가공처리공정운영을 철저히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고 설비관리문화를 확립하며 만가동으로 운영하여 품들여 마련한 가공기지가 실지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 땅에서 창조되고 생산되는 하나하나의 창조물, 생산물은 다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알찬 열매이고 귀중한 재부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시고 쉬임없이 현지지도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에 의하여 온 나라 도처에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행복의 열매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여러가지 질좋은 신발들

올해에 생산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첫물사과

자위적국방력을 최대로 강화하시여

군력이 강해야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 평화를 지켜낼수 있다.

오늘도 지구상의 여러곳에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전란의 참화속에 빠져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자기를 지킬 힘이 약하여 초래된 비극적현실이다.

지금 공화국이 발전과 번영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는것은 군력강화를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9》를 참관하시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같은 애국헌신으로 인민군대를 그 어떤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는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시였다.

험한 산중초소로부터 최전연초소, 외진 섬초소에 이르기까지 조국방선의 전호가와 진지, 훈련장들에는 군력강화를 위해 바치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인들의 훈련을 지도하시며 그들이 만단의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가르쳐주시였다.

언제인가 무도영웅방어대를 찾으시여 전군적인 포사격경기에서 무도영웅방어대 1포가 단연 1등을 쟁취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앞으로도 전군의 앞장에 서라고 고무격려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올해에만도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과 새로 개발한 무기체계들의 시험사격들을 지도하시며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고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쳐나가도록 하시였다.

지난 4월 어느 한 비행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추격습격기들을 리륙시켜 비행사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공중전투조작을 시켜보도록 하시고 그들의 비행술을 지켜보시며 그 어떤 비행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번에 있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참관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싸움의 승패여부는 무장장비의 전투적제원에 따라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모든 비행사들이 주체적인 항공전법을 깊이 체득하고 작전과 전투에 능숙히 구현할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행훈련을 정상화, 체계화, 실전화하고 극악한 조건에서 강도높게 진행하여 모든 비행사들이 높은 비행술과 폭격술, 사격술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저격병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하시면서도 불의에 떨어진 전투명령을 받고 생소한 지대에서 려단장, 정치위원들이 직접 전투원들을 이끌고 능숙한 전투동작들을 펼치는데 정말 볼멋이 있다고, 용맹스럽고 미더운 진짜배기싸움군들이라고 치하하시면서 훈련과 판정을 해도 이처럼 불의에, 규정과 틀에만 매여달리지 말고 실전과 같은 여러가지 극악한 환경속에서 진행하여 실지 인민군부대들의 전쟁준비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열단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군대로 육성하자면 훈련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나가며 한가지 훈련을 해도 전쟁환경을 그대로 설정하고 여러가지 불의적인 정황들을 수시로 조성하면서 실용적이며 참신한 실동훈련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군부대들의 실동훈련과 훈련경기들을 지도하시면서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훈련내용과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신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최강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되고있다.

하기에 외신들도 《조선인민군은 정신력이 투철하고 실전능력이 높은 세계일류급의 강군으로 공인되고있다. 이것은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정은**각하께서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은 물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담보해나가신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결코 조선을 건드릴수도 이길수도 없다는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견해이다.》라고 평하고있는것이다.

자위적국방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장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이 땅의 평화와 인민의 안녕이 굳건히 수호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도 커다란 전변들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수정꽃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조국해방 69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까삐딸로스뜨로이유한책임회사 사장이 올린 선물이다.

비범한 예지와 출중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에 감복한 그는 자신의 다함없는 신뢰와 칭송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올릴 결심을 하였다.

그는 정결함과 진귀함으로 하여 가장 존경하는분에게만 올리는것으로 알려져있는 수정공예품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올릴것을 결심하고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체스꼬 보헤미아회사를 통하여 2점의 수정꽃병을 마련하였다.

예로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스꼬의 보헤미아수정유리제품은 특이한 예술적기법으로 반흠을 파서 띠돌림으로 무늬형상을 하였으며 합금을 가지고 도색을 하여 세월이 가도 탈색을 모른다고 한다.

선물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사장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을 정갈한 수정재질에 은백색의 합금도금과 섬세한 격자무늬 등 뛰여난 세공술에 담아 예술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사장은 선물을 전달하면서 《나는 조선해방 69돐을 맞으며 조선의 위대한 **김정은**동지께 또다시 선물을 올리는 영광을 지니게 된다. 이 영광은 나뿐만아니라 우리 회사와 나의 가족의 영광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조선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앞날이 창창하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온 나라에 풍기는

김치향기

지금은 립동이 지난 때라 가정들에서 김장담그기가 한창이다.

집집마다에서 그리고 크고작은 김치공장들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만들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김장철풍경이 어떠한가는 류경김치공장을 찾으면 한눈에 알수 있다.

… 아담한 울담밑에 오지독이며 갖가지 사기단지들이 쭉 늘어섰는데 초절임을 한 배추며 깨끗이 다듬은 무우들이 차곡차곡 쌓아져있다.

그런가 하면 보쌈김치며 동치미에 넣을 사과와 배, 대추와 밤이 크고작은 그릇에 담겨져있다. 깍두기에 넣을 명태는 칼도마를 기다리고있다. 절구옆에는 김치의 맛과 색을 돋굴 새빨간 통고추들이 광주리에 담겨져있다. 향긋하게 잘 익은 김치맛을 떠올려주는 마늘, 파, 생강 등 김치소에 드는것들도 있다. …

공장의 생산건물현관벽에 형상되여있는 풍경화 《김치향기》의 내용이다.

인상적인 한폭의 예술작품은 김장을 담그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을 생동하게 담고있다.

두해전 1월 어느날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풍경화 《김치향기》를 보시고 김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특성에 어울리게 김장철의 풍치와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를 생동하게 반영하였다고 하시였다.

평양의 교외에 자리잡고있는 류경김치공장은 김치생산의 공업화를 위하여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건설된 김치공장의 표준, 본보기이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식생활과정에 눈에 익고 손에 익은 김치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한다는것은 헐한것이 아니다.

공업적방법에 의하여 다량생산될수록 그에 걸맞게 질도 따라서야 하는것이다.

더우기 김치는 백김치, 깍두기, 통김치, 석박지, 동치미, 보쌈김치 등 수십여가지나 된다.

계절에 따라, 재료에 따라 그리고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른 김치를 공업적으로 만들자면 공장을 어떻게 건설하여야 하는가.

공장을 세웠지만 그 누구도, 설계나 식료부문의 전문가들도 눈맛에서나 입맛에서나 인민들의 기호와 구미에 맞는 김치를 생산할수 있는 생산공정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있었다.

평양시민들에게 사철 맛좋은 김치를 생산보장하는 김치공장건설을 구상하시고 김치생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해전 6월 어느날 새로 건설된 류경김치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생산공정이며 설비들의 기술적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생산공정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로부터 생산현장의 위생안전성보장문제, 각이한 재료들의 배합비률과 같은 생산규정을 지키는 문제, 원자재보장문제 등 생산과 관리운영과 관련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류경김치공장을 우리 나라 김치공업화를 위한 본보기공장으로 꾸리도록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져있었다.

표준적인 김치공장을 건설한 경험에 토대하여 각 지방들에도 현대적인 김치공장을 건설하도록 하는것이 그이의 의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공장의 김치생산공정, 깍두기생산공정, 장절임생산공정 등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였다. 또한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무균화, 무진화된 상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있다.

즐비하게 늘어선 남새온실들과 넓은 면적의 남새밭을 끼고있는 류경김치공장에서는 통배추김치, 석박김치, 백김치, 콩나물김치, 오이김치, 버섯장절임, 깍두기, 어린이영양김치 등 갖가지 김치가 생산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김치공장에서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명수준에 맞게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것은 민족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며 민족전통음식이며 세계5대건강식품으로 유명해진 김치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자랑할수 있게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치를 더 맛있게, 더 많이.

여기에는 우수한 전통음식발전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그이의 보살피심속에 민족의 고유한 김치향기가 집집마다에 넘쳐나고 전통음식문화가 사람들의 식생활향상을 적극 도모하고있다.

류경김치공장의 《김치향기》 풍경화처럼 온 나라에 펼쳐진 김장풍경은 이채롭다.

장현아

류경김치공장

조선은 자주권수호의 본보기이다

외국인들의 반향

자주의 강국으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경탄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사람들은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은 위대한 수령들의 령도밑에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책동으로 하여 적지 않은 나라들이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는 현세계에서 조선과 같이 자력으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담보해가는 나라는 없다.

자주는 조선의 생명이다.

조선인민이 자기가 선택한 주체의 한길을 따라 꿋꿋이 전진해올수 있은 근본비결은 대대로 걸출한 수령들을 모시였기때문이다.

김정은위원장은 자주적대가 강한 지도자이시다.

그이께서 계시여 조선은 사회주의보루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총서기 미하일 빤첸꼬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은 주체사상이다, 조선은 자주권수호의 본보기이다, 진보적인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을 위대한 나라로 찬양하고있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벌가리아 쏘피아에 있는 **김일성**도서실 책임자 마리야 안겔로바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한길로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다, 지배와 강권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며 나아가는 조선의 현실은 령도자가 위대하여야 나라도 인민도 강해진다는 진리를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주체사상연구 로므니아전국위원회 위원장 바씰레 오를레아누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아무리 대국이라고 자처해도 자주적대가 없는 나라는 강국으로 될수 없다.

조선은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사회주의국가이다.

이것은 조선이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있기때문이다.

자주의 길에 승리가 있고 번영이 있다는것은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력사가 새겨주는 철리이다.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의 주견과 결심에 따라 당당히 나아가는 조선이야말로 자주의 강국이다.

본사기자

판문점에 새기신 통일애국의 거룩한 자욱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때로부터 어언 스물세돌기의 년륜이 새겨지고있다.

감회도 새로운 주체85(1996)년 11월 24일,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은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남긴 뜻깊은 사변이였다.

당시 조선반도정세는 내외호전세력의 반공화국전쟁책동으로 인하여 날로 험악해지고있었다. 더우기 쌍방의 군대가 총부리를 마주하고있는 판문점은 다치면 터질듯 최대의 긴장이 서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처럼 위험천만한 판문점에 나가신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굳은 각오와 의지에서였다.

하기에 살벌한 판문점에서 뜻밖에도 자나깨나 그리던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게 된 초병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력사의 그날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를 찾으시였다.

깊은 감회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친필은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담겨진 뜻은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김 일 성
1994. 7. 7.》

정녕 그것은 우리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한생과 필생의 념원이 비껴있는 불멸의 글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각에 비준하여주신 력사적문건이 바로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이였다고, 수령님께서는 그때에도 밤을 지새우시며 두툼한 문건을 다 보아주시고 표지에 활달하신 필체로 친히 존함과 날자를 써주시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해 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업적과 크나큰 로고를 후세에 길이 전하고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실 의지밑에 수령님의 고귀한 친필을 화강석에 새겨 판문점에 세우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새기면 새길수록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일애국의 숭고한 뜻이 뜨겁게 안겨오는 친필비이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정말 많은 로고를 바치시고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수령님의 친필비앞에 이렇게 서니 생각되는것이 많다고 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바치신 수령님의 평생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문제로 마음을 놓지 못하시며 온넋을 깡그리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를 되새겨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몸소 구상하여 내놓으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로선과 방침들을 하나하나 꼽아나가시였다. 그러시면서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이것이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이라고 밝혀주시였다.

마가을의 찬바람이 불어오는 판문점의 언덕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할 굳센 의지를 가다듬으시였다.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대결책동에 의해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그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단행하신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내외호전세력들에게는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서 천명하신 통일애국의 의지를 안으시고 자주통일위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시였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와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해 이 땅우에는 우리 민족끼리 리념에 따라 전진하는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도 펼쳐지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으나 이른새벽 안개를 헤치시며 최전연중의 전연인 판문점에 나오시여 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하신 모습을 우리 겨레는 잊지 못하고 길이 전해가고있다.

민족의 숙원을 풀어주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유훈을 받드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렬한 통일의지로 심장을 끓이시며 뜨거운 민족애와 비범한 예지, 넓은 포용력으로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온 겨레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불멸의 조국통일3대헌장이 우리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고있기에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 **민족의 통일숙원을 풀어주시려고** ◎

조국통일은 곧 애국

주체71(1982)년 9월 9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뜻깊은 담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하여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건국업적에 대하여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백두의 험산준령을 넘나드시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신것은 분렬된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였다고, 우리 수령님께서 백두산밀영에서 등잔불을 드시고 비쳐보신 우리 나라의 지도는 백두산에서 한나산에 이르는 삼천리조선이였지 결코 두동강이 난 조선이 아니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격도, 조선에서 살 자격도 상실한 목석이라고, 민족의 분렬을 가장 큰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만이 애국자이며 혁명가이라고,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 그 가르치심은 조선민족으로 태여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진리로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할 애국의 지침이였다.

애국자와 매국노

주체78(1989)년 4월 2일, 이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민족대단결사상을 밝히시고 민족적단결로 강도 일제를 타승하시였으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조국개선연설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자고 호소하시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시였다고 하시면서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의 의지라고, 통일이 애국이고 분렬이 매국이듯이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민족대단결을 저애하는 사람은 매국노이라고 준절하게 가르치시였다.

민족의 대단결을 조국통일의 근본문제로 삼으시고 온 민족의 대단합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철석의 의지가 산악같은 무게로 얹혀있는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통일전망에 대한 명석한 해답

주체74(1985)년 5월 2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느 한 나라의 국가수반을 만나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국가수반은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의 통일과 관련한 질문을 하였다.

《오늘 통일문제해결의 전망이 좋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우리 나라 통일문제해결의 전망은 락관적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인민들과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을 포함하여 전체 조선민족이 한결같이 통일을 원하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진보적인민들도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바라고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장애와 난관을 이겨내고 반드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이날 담화가 있은 후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석한 해답, 뜨거운 민족애와 열화같은 통일의지에 탄복하여 이런 말을 남기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하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제국주의아성, 미국과 당당하게 맞서 민족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조선인민은 정녕 위대하다. 그 위대성은 바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였기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민족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동방의 강대국으로 빛날것이다. 이미 인류력사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민족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증명하였다. …

본사기자

통일의 길에 빛나는 위인의 명언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사람은 애국자로 되고 민족대단결을 저애하는 사람은 매국노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언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사람은 애국자로 되고 민족대단결을 저애하는 사람은 매국노로 된다.》는 우리 민족성원모두에게 참된 애국의 진리를 가르쳐주며 통일애국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고귀한 지침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은 분렬된 조국에서 사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은 무엇이며 참된 애국에 살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명철한 해답을 준다.

조선민족은 유구한 력사를 이어오며 조상대대로 한 강토우에서 하나의 피줄을 나누고 우수한 문화를 창조하여온 슬기롭고 자랑스러운 단일민족이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나가는 애국의 전통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이처럼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며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렬로 장장 70여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고통속에 몸부림쳐오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최대의 숙원이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위업이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살자면 누구나 민족의 대단결을 지향하고 그 실천투쟁에 적극 뛰여들어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자신이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단결해야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민족성원모두는 통일위업실현에서 마땅히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주체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민족대단결위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고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명실공히 민족공동의 애국위업이다. 따라서 조선민족의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의 대단결을 결코 외면할수 없다. 만일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외면한다면 그런 사람은 조국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서 민족안에서 살 권리와 자격도 없다.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적폐세력들이 반공화국적대시대결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소동에 계속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은 민족의 단합을 방해하고 나라의 분렬을 무한정 지속시키려는 매국행위로서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수 없다.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저애하는가 하는것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공화국은 변화되는 정세와 환경속에서도 조국통일위업을 명실공히 전민족적애국위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하나의 조국통일력량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성원으로서 통일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사람은 애국자로 되고 민족대단결을 저애하는 사람은 매국노로 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참으로 민족성원들의 가슴마다에 통일애국의 진리를 깊이 새겨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분렬이 가져온 온갖 오해와 불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인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 온 겨레가 소원하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한다.

본사기자 유금주

통일애국의 려정을 더듬어 (15)

합리적인 협상제안들을 내놓고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수재민들에 대한 동포애적인 대규모지원사업을 계기로 북과 남사이에 조성된 접촉과 대화분위기를 살리고 그것을 통일대화로 이어나가기 위하여 여러가지 성의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1984년 10월 3일부 담화와 10월 29일부 편지를 통하여 11년동안이나 중단상태에 있는 쌍방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재개할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밝히고 예비접촉과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을 담은 제안을 남조선측에 알리였다. 또한 북과 남사이에는 인도주의적문제뿐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하면서 경제분야에서도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호상협조와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쌍방간의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어 10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당시) 부총리는 공화국의 립장은 어디까지나 북남합작과 단결로 통일을 이룩하자는것임을 밝히고 북남경제회담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담은 편지를 남조선의 부총리에게 보냈다.

공화국의 대화제의는 구호물자의 인도인수를 통해 모처럼 마련된 좋은 분위기를 북남대화재개에로 이어놓아 북남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통일의 길을 개척하려는 애국애족의 립장에서 출발한것이였다.

그리하여 1984년 11월 15일 판문점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북남경제회담이 진행되게 되였다. 북측은 회담에서 이미 1972년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시였으며 남조선측에서 받아들인바 있는 지하자원의 공동개발문제, 어업분야와 농업분야에서 서로 협조할데 대한 문제, 물자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을 실천에 옮길데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고 북과 남의 경제적합작과 교류를 통일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경제협력기구로서 《북남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시킬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북남경제회담을 무역상사대표단들의 회담처럼 여기면서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합작이 아니라 무역이나 하자고 고집함으로써 회담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런 속에서 북남경제회담과 별도로 북남적십자회담이 진행되였다.

1984년 11월 20일 공화국의 제안대로 판문점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북남적십자본회담재개를 위한 북과 남의 적십자대표들의 예비접촉이 진행되였다. 이 접촉에서는 북측의 제의에 의하여 빠른 시일안으로 북남적십자회담 제8차회의를 서울에서, 제9차회의를 평양에서 가지며 이미 합의되여 토의하여오던 의제를 재개되는 북남적십자회담의 의제로 하기로 하였으며 대표단구성과 기타 절차문제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북남대화는 재개되였지만 북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와 긴장상태의 격화로 하여 암초에 부딪치지 않을수 없었으며 제2차 경제회담은 다음해로 연기되게 되였다.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은 1985년 1월에 연기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미국이 《팀 스피리트 85》합동군사연습계획의 발표로 북남대화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후 북남경제회담은 1985년 5월과 6월에 2차, 3차, 9월과 11월에 4차, 5차 회담이 진행되였지만 남조선당국의 분렬주의적립장과 태도로 하여 전체 조선민족의 기대에 맞는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제2차 북남경제회담에서 북측이 내놓은 통일지향적인 경제기구인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내오고 폭넓은 경제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제안에 대하여 남조선측은 무역거래나 하자고 계속 주장하였으며 제3차 북남경제회담에서는 쌍방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구성할데 대한 북측의 제안에 하는수없이 동의를 표시하고는 그 합의서토의는 회피하였다.

북측이 제안한 방안의 기본사상은 합작과 교류를 다같이 진행하자는것이였다.

북남경제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경제적잠재력을 리용하여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을 크게 촉진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런 과정에 북남간의 불신과 대립이 점차 해소되고 민족적단결이 촉진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보게 될것이였다.

그러나 남측은 교류를 먼저 하고 합작은 차후에 하자는 립장과 자세를 고집하면서 회담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선교류, 후합작》론은 같은 겨레의 합작과 교류를 나라와 나라들사이의 무역관계로 전환시켜 민족분렬의 현상태를 유지하고 고착시키려는 분렬주의적립장이였다.

한편 북남적십자본회담은 1985년 5월 28~29일 서울에서 제8차회담, 8월 27~28일 평양에서 제9차회담, 12월 3~4일 서울에서 제10차회담이 진행되였다.

제8차, 제9차회담에서는 조국해방 40돐을 계기로 각기 적십자단체책임자를 단장으로 하여 예술단 50명, 고향방문단 50명, 기자단 30명, 수행인원 20명 총 151명으로 적십자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을 구성하여 방문지를 평양과 서울로 하고 3박4일간 체류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하여 채택한 합의서를 재확인하였다.

그리하여 북과 남의 적십자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은 9월 20일 오전 판문점을 통과하여 각각 서울과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것은 나라가 분렬된지 40년만에 처음 있은 일로서 온 겨레에게 기쁨을 주었으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이 가슴벅찬 광경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평화적통일의 길을 열어놓으려는 공화국정부의 애국애족의 립장과 성의있는 노력의 귀중한 결실이였다.

남조선수재민들에 대한 동포애적인 원호와 그를 계기로 하여 마련된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의 전과정은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의지와 립장을 내외에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손화복

외세의존정책은 치욕과 재앙을 초래한다

최근 남조선의 진보운동단체들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의 외세의존정책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적극 전개하고있다.

지난 15일 6.15남측위원회, 민주로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비롯한 490여개의 각계층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현 《정부》의 친미굴욕적인 《대북정책》을 신랄히 규탄하면서 미국의 제재철회, 당국의 《대북정책》전면전환,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16일에는 민주로총과 《한국진보련대》를 비롯한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무어진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 평화실현국민행동》이 서울에서 미국규탄대회를 열고 《동맹이냐, 날강도냐》, 《굴욕협상 중단하라》, 《미국은 간섭말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남조선에 《방위비분담금》증액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을 강박하고있는 미국에 대한 단죄규탄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특히 18일에는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 평화실현국민행동》을 비롯한 60여개의 단체들이 《방위비분담금》협상이 벌어지는 남조선국방연구원을 포위하고 항의집회를 격렬하게 벌리였다.

이것은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책동을 배격하고 민족자주, 민족공조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남조선민심의 반영으로서 지극히 응당한 투쟁이다.

현재 조미관계와 북남관계가 교착국면에 처한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구태의연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의 굴욕적인 외세의존정책때문이다.

미국이 대화를 통한 조미관계문제해결을 바란다면 화근인 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하여 합의리행의 전제를 마련해야 한다.

남조선당국도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미국은 남조선을 저들의 아시아-태평양패권전략과 동북아시아전략실현을 위한 핵전초기지로, 《동맹》이 아니라 폭리를 얻을수 있는 돈벌이대상으로, 침략적인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을 위한 한갖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고있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국무성과 국방성의 고위관료들을 련일 남조선에 급파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현재의 5배이상인 50억US$로 늘이라고 강박해나서고있다. 미국은 서울에서 진행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3차회의에서 남조선에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에 밝혀진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용뿐아니라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비용, 조선반도를 감시하는 정찰위성운영비용, 남조선에 배치한 미싸일방어체계운영비용, 미군의 조선반도순환배치비용, 합동군사연습비용, 심지어 괌도와 하와이를 비롯하여 조선반도주변 해외기지에 주둔한 미군비용까지 모두 《방위비분담금》항목에 포함시키라고 강요해나섰다.

타이에서 열린 남조선미국 일본국방장관회담에서도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기하라고 압을 가하였다.

지금까지 남조선이 미국을 신주모시듯 하였지만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대미굴종과 외세의존정책은 치욕과 재앙만을 초래할 뿐이다.

황혜정

정세악화를 노린 대결모의판

외세와 매국노가 어울리는 곳에서는 민족반역의 흥정이 있기마련이다.

얼마전 남조선군부세력이 서울에서 제44차 남조선미국《군사위원회》회의와 제51차 남조선미국《년례안보협의회》라는것을 련이어 벌려놓고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모의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군부세력과 미국은 회의후 공동성명을 통해 군사대비태세와 련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며 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제공을 재확인한다는것, 우주작전능력향상을 위한 량자 및 다자간 협조를 확대하고 미, 일, 남조선3자안보협력을 지속해나간다는것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해외에서도 남조선군부세력은 외세와의 회담을 줄줄이 벌려놓고 군사적공모결탁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모의하였다.

남조선군부세력이 외세와 련이어 벌려놓은 꿍꿍이판들은 명백히 동족을 해치기 위한 대결모의판으로서 반공화국적대의식의 집중적표현이다.

지금 가뜩이나 불안정한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정세는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책동으로 말미암아 날을 따라 수습하기 어려운 위기국면으로 치닫고있다.

북남군사분야합의리행을 외면하면서 외세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의 하수인이 되여 동족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려온 남조선군부세력의 배신적인 처사는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북남군사분야합의서채택이후에도 남조선군부세력은 시대착오적인 대결관념에 사로잡혀 외세와 공조하면서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남조선군부세력은 《명칭변경》, 《훈련축소》라는 기만적인 간판뒤에서 내용과 도발적성격에서 이전과 조금도 다를바없는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계속 벌리였으며 동족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첨단전쟁장비들을 외부로부터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였다.

이러한 속에 미국과 남조선군부세력이 군사적모의판들마다에서 《확장억제력》제공과 《군사적대비태세》강화에 대해 떠들어댄것은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대결을 선언한것이나 다름없다.

대결모의판들에서 고안해낸것을 그대로 실행할때 조선반도정세가 더욱 험악해지리라는것은 자명하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남조선군부세력이 3각군사동맹의 굴레를 쓰고 미일상전의 대조선 및 대륙침략야망에 편승하여 마구 놀아대고있는것이다.

동족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마저 저버리고 외세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편승하는 남조선군부세력의 행위는 외세를 등에 업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었던 지난 보수《정권》의 죄악과 조금도 다를바없다.

남조선군부세력의 처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내외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배치되는것으로서 북남관계를 더욱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조선반도정세를 갈수록 복잡해지게 하는 후과를 초래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아무리 《대화》와 《관계개선》이라는 귀간지러운 타령을 해대도 그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서는 추호도 달라진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악랄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던 과거의 악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공화국의 응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미국식오만성의 극치

최근 미국방성과 국무성의 고위관계자들이 어물전에 날아드는 쉬파리마냥 남조선에 무리로 쏠어들어와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그들이 남조선에 찾아든것은 결코 유람이나 하자고 온것이 아니였다.

그들의 목적은 남조선당국에 남조선강점 미군유지와 관련한 《방위비》증액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미국은 11월 23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철회하라고 남조선당국에 집요하게 강요하고있다.

지난 15일 미국 방장관을 비롯한 미국방성의 고위인물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할것을 거듭 요구하고 이보다 앞서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차관보 역시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주장한것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실례이다.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도 기자회견이라는데서 《남조선이 과거사문제를 미국의 안보와 조약상의무인 한반도를 방어하는것과 관련한 미국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안보령역으로 확대한것에 대해서 실망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요구했다.

이들만이 아니다.

지난 16일 미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은 남조선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다시 전념하고 일본과 협력해 이 협정을 갱신할것을 독려한다.》며 협정의 연장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미상원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가 《주한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동맹에 손상을 준다.》는 당치않은 구실밑에 협정을 연장할것을 남조선당국에 강요하는 그 무슨 결의안이라는것이 상정되였다.

협박과 강박, 회유가 결합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철회요구는 그대로 남조선을 전쟁하수인, 식민지노복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의 횡포무도한 간섭과 전횡의 산물이다.

따지고보면 미국은 남조선당국이 취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결정에 간섭할 하등의 리유도 없다.

그것도 그럴것이 남조선당국이 취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결정은 죄많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미화분식하다 못해 나중에는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으로 경제침략까지 거리낌없이 감행하는 일본의 날강도적인 행태에 따른 대응책이기때문이다.

미국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의 역성만을 들면서 일방적으로 남조선당국에 굴종과 양보를 강요하는 여기에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남조선, 미국, 일본의 3각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이 지역을 지배해보려는 야망과 함께 남조선을 더욱더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흉심이 깃들어있다.

미국식오만성의 극치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철회요구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의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는 물론 당국자까지 모두 떨쳐나서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일본의 변화가 없으면 종료결정을 철회할 명분이 없다.》, 《한미일안보협력에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니 협정종료에 대한 립장만은 리해》해달라며 호통치는 상전의 노여움을 풀어보려고 비굴하게 놀아대고있다.

가관은 《자한당》과 류승민, 하태경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결정이 《한미동맹》의 파기선언으로 될수 있다, 협정종료는 주《한》미군철수를 초래하고 안보와 경제에 재앙을 불러오는 자해행위이라고 떠들면서 당국에 협정의 종료를 철회할것을 요구하고있는것이다.

그야말로 친미, 친일에 쩌든 현대판 《을사오적》들의 망동이 아닐수 없다.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안중에는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서라도 《정권》탈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흉심밖에 없다.

사대에 미친 이런 얼간망둥이같은 역적들이 있으니 미국과 일본이 저들의 요구를 뻔뻔스럽게 강요하며 오만무례하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현실은 침략적인 외세와 그에 아부굴종하는 《자한당》과 같은 보수적폐세력들이 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례질것은 불행과 고통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신기루와 같은 《보수대통합》

남조선에서 2020년 《국회》의원선거가 수개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이한 정치세력들의 세력재편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특히 《자한당》패들이 내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수대통합》놀음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당대표인 황교안은 얼마전 2020년 《국회》의원선거승리와 현 《정권》심판을 위한 《보수대통합》을 떠든 이후 당안에 보수통합협의실무팀을 구성하고 어떻게 하나 《바른미래당》의 류승민, 안철수파들을 끌어당겨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한편으로는 당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수통합을 론의하는 놀음을 련이어 벌리는가 하면 12월에는 범보수적인 통합협의체를 내오려 하고있다.

보수적경향의 단체들과 전문가들도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하자면 하나로 뭉치는 길밖에 없다고 하면서 보수통합론의에 부채질을 하고있다.

하지만 보수세력들이 떠드는 《대통합》은 풀기 어려운 여러가지 난문제들로 인해 도저히 이루어지기 힘든 한갖 신기루와 같은것이라고 놓았지만 친박근혜파인 《우리공화당》패들은 먼저 탄핵에 찬성한자들의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고있으며 박근혜탄핵에 찬성하였던 《바른미래당》의 류승민파들은 탄핵책임문제를 계속 묻는다면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있다.

재야보수세력들이 우선 하나로 통합하고 《혁신》은 그후에 도모하자는 《선통합, 후쇄신》구호를 내들고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류승민파는 개혁적인 보수가 중심이 되여야 하며 보수진영의 혁신과 쇄신이 없는 통합은 구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먼저 《선쇄신, 후통합》이 이룩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반면에 《우리공화당》패들은 《바른미래당》의 탈당파들은 《가짜보수》로서 통합대상이 아니라고 배척하면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극우보수, 《애국보수》세력들만 통합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이밖에도 통합이 성사되는 경우 서로의 리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 내보낼 후보추천문제, 현재 정치권에서 커다란 쟁점의 하나로 되고있는 선거제도개편안의 《국회》통과여부 등 풀기 어려운 난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여 《보수대통합》문제는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있으며 도리여 《자한당》내부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황교안의 무능론》, 《당지도부총사퇴론》까지 터져나오면서 당지지률이 떨어지고있는 형편이다.

제반 사실들은 《자한당》패들이 떠드는 《보수대통합》이라는것이 한갖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제넘은 객기에 지나지 않는 《자한당》의 《보수대통합》놀음이야말로 세상웃기는노릇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시

단식은 단명이다

김영일

염통은 좁쌀 몇알이나 담을가
참새만 한 염통을 가진 주제에
제법 기세등등히 광장에 퍼더앉아
분별잃고 설쳐대는 《자한당》 대표 황교안

결연히 《단식투쟁》 돌입했다지만
세가지 《투쟁리유》는 침뱉을 더러운것이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철회
—《공수처법》포기
—《선거법개정안》철회

벌써 잊었나
단식을 하던 《자한당》의 전 원내대표
《국회》앞 계단에서 주먹 한대 얻어맞고
망신을 당하던 그때의 그 일을
지금 너의 꼴이 민심의 원성을 사
주먹 아닌 발길질에 채울것 같구나

보이지 않느냐
너의 《자한당》내에서도 흘겨보는 눈길이
들리지 않느냐
너의 추태, 너의 푼수없는 결기를 두고
민심이 왁작 끓어 퍼붓는 야유와 분노가

—정치초보의 떼쓰기
—일본위해 단식하는 《렬사》
—엄마가 뭘 안 사준다고 굶겠다 협박하는 아이
정말 민심을 등질대로 등진
《자한당》의 면모가 네 추한 몰골에 비껴있구나

열흘이든 백날이든 단식을 해봐라
눈꼽만 한 동정도, 리해도 없으리
달라질것은 오직 하나
등에 가붙은 배가죽 부여잡은 앙상한 네 몰골뿐
민심은 결코 한치도 네 가까이에 다가서지 않으리

차라리 단식끝에 절명을 택하는것이
황교안, 네가 민심을 위해 할수 있는
유일한 옳은 처사이거니
남녘땅에서 살수 없는 더러운 목숨
너의 단식은 너의 단명을 재촉할뿐이다

일본은 력사의 법정을 피할수 없다

지난 13일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첫 재판이 진행되였다.

이번 재판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박근혜패당이 아베정부와 체결한 《위안부합의》가 일본에 책임을 묻지 않는 정치적야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일본정부에 직접 법적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남조선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소송한데 따라 진행되였다고 한다.

이날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일본측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데 대해 규탄하면서 일본이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와야 한다, 나라가 잘못해놓고 재판에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남조선법원은 성노예범죄와 관련한 증거들의 번역문제로 다음재판을 래년 2월 5일에 열기로 하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이번 재판은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에 대한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남조선민심의 반영이다.

그런데 과거에 치떨리는 반인륜적만행을 저지른 당사자인 일본의 아베정부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어떠한가.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이번 재판을 놓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문제이다.》, 《위안부문제는 2015년 한일정부간 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 《주권면제원칙에 따라 일본정부는 상정된 안건이 한국의 재판권에 속한다는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여야 한다.》고 줴쳐대고있다.

낯가죽이 두터워도 여간 두터운자들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이 력사상 어느 나라에도 어느 시기에도 있어본적 없는 일본군성노예범죄가 그 누구의 《오보》에 의해 《날조》된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모진 정신육체적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을 전장의 《매춘부》로, 《인신매매피해자》로 매도한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반동들은 이번에도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소송은 기각되여야 한다고 제편에서 큰소리치며 후안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아베패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일본정부가 이번 재판을 보는 시선은 한일관계악화를 촉발시킨 강제징용피해배상재판때와 비슷하다.》, 《향후 법원판결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유엔 등 국제기구도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성노예제였다고 인정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저들이 저지른 엄청난 반인륜적범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것을 《국제법위반》, 《이미 해결된 문제》이라는 당치않은 궤변으로 거부하며 오만무도하게 놀아대는 섬나라족속들이야말로 뻔뻔함을 천성으로 타고난 자들이다.

과거 일제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든 특대형 반인륜적범죄만행은 오늘도 세인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으며 이것은 일본군대와 국가가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일본정부가 법정에 나서야 하는것이다.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시효와 주권, 지역적한계가 없으며 가장 단호하고 무자비한 징벌을 내려야 한다는것이 바로 국제법이며 국제관례이다.

일본이 아무리 법정에 나서지 않겠다고 발버둥질해도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리은심

제2의 초불대항쟁에 나설것을 선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주권자전국회의, 4.16가족협의회를 비롯한 24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광화문초불련대를 결성하였다.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진 단체들은 《제2의 초불항쟁으로 적폐청산, 토착왜구청산, 민주대개혁 실현하자》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랑독하였다.

회견문은 사이비종교인, 《성조기부대》 등 보수적폐세력이 광화문광장을 장악하고 청와대에로의 진격을 시도하며 《세월》호참사피해자유가족들과 시민들을 위협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초불성과를 뒤집어엎고 재집권을 실현하려는 적폐세력의 이러한 반력사적, 반국민적행위를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회견문은 밝혔다.

회견문은 모든 초불세력이 단결하여 적폐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제2의 초불대항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광화문과 전지역에서 전국민초불항쟁을 성사시키기 위한데 힘을 모을것이다.

광화문광장을 다시 국민의 초불바다로 물결치게 하고 보수적폐세력을 청산할것이다.

23일 《세월》호광장에서 적폐청산,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책임자처벌을 위한 초불집회를 개최할것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인상, 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 등 미국과 일본의 부당한 압력을 반대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성강의 봉화는 이렇게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와 성강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강철같은 신념, 쇠물처럼 뜨거운 정으로 혼연일체가 되여 지펴올린 성강의 봉화는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공화국의 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주체87(1998)년 3월 어느날 사회주의수호전을 진두에서 이끄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전선길이 성강으로 이어지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었다.

주런이 서있는 전기로들중 불을 지핀것은 불과 두기뿐이여서 일터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보호안경도 떳떳이 드리지 못하였던 성강사람들이였다.

소재를 물고 가동하던 압연기마저 야속하게 동음을 멈추었을 때 모두의 심장은 졸아드는듯 했다.

위대한 장군님께 붉은 쇠물과 철강재더미를 가슴후련히 보여드리지 못하는 죄스러움에 일군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였고 로동자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그날 기업소를 돌아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는 강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로동계급의 정신력이 더 중요하다고, 그 정신만 있으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당에서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이 다시한번 천리마를 탄 기세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앞장에서 들고나갈것을 호소하시였다.

시련의 두터운 얼음장을 깨치며 성강은 일어섰다.

한g의 원료와 연료, 한W의 전력이 목숨처럼 귀했다. 아침이면 손수레에 파철을 싣고 공장정문으로 들어서던 종업원들이며 녀인들과 로인들, 땅우에 없으면 땅속을 파헤치고 땅속에 없으면 바다물속을 헤치며 전기로에 넣을 파철을 한덩이, 한덩이 마련하던 그 모습들을 온 나라가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불의의 정황속에서 세차게 뿜어나오는 랭각수를 한몸으로 막아 출강을 보장한 로동자는 누구였으며 쇠물남비를 문 천정기중기가 뜻밖에 멈춰섰을 때 그것을 한치한치 인력으로 끌고가 기어이 쇠물을 쏟아낸 사람들은 또 누구였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파철집중수송렬차가 련이어 기적을 울리며 북방의 철의 기지로 들어설 때 성강사람들은 최전선의 용사들에게 보내주시는 포탄수송렬차로 생각하며 맞이하였다.

《성강의 파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성강의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보내주신 그 미술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였다.

검은구름의 장막을 헤가르며 솟구치는 그 파도처럼 성강이 하루빨리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그이의 또 하나의 크나큰 믿음이 실려있었다.

그 믿음, 그 정을 안고 성강은 일떠섰다.

전기로들에서는 제강시간을 종전에 비해 훨씬 단축하며 쇠물이 끓었고 압연장들에서는 생산이 정상화되던 시기에도 얼마 해보지 못하던 고속도압연, 련속두대치기압연전투가 벌어져 하루생산실적이 최고 150%이상까지 뛰여올랐다. 용해장에서는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는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였다.

1999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월강철생산목표를 점령한 성강땅에서는 승리의 첫 환호성이 터져올랐으며 2000년에는 련이어 월강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기적의 열풍이 휘몰아쳤다.

성강의 봉화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사생결단의 공격정신이고 제힘을 믿고 떨쳐일어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자력갱생의 불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성강의 봉화는 료원의 불길처럼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져 시련과 난관의 두터운 얼음장이 산산이 쪼각나고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대고조가 일어나게 되였다.

오늘도 성강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그 불길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시대의 앞장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주체철에 의한 선진적인 제강법을 완성한 성강의 로동자, 기술자들

《이런 좋은 나라가 내 조국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얼마전 한 재미동포가 《아들을 영생의 언덕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김희련녀성에 대한 이야기로 북전역이 들끓고있다. 북녘동포들은 수수하고 평범한 김희련녀성을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녀인》이라고 부르며 그의 삶에 자신들을 비춰보고있다.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전체 인민이 이토록 감동하며 열광하는것일가.

김희련녀성은 맏아들이 최전방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하던중 부상을 당하여 위중하다는 소식을 받고 아들을 찾았다. 아들은 병상에서 어머니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부대를 방문하시였을 때의 감격, 그이의 사랑이 어린 소고기국을 푸짐하게 먹었던 추억, 풀먹는집짐승을 키워 군인들의 고기문제를 해결하시려는 최고지도자의 군인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철부지이던 아들이 나라일을 걱정하고 수령의 마음을 헤아릴줄 아는 훌륭한 공민으로 성장한것이 눈물겹도록 기쁘고 대견하였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아들의 장한 꿈을 기어이 이루어주며 그가 못다한 군복무도 마쳐주리라고 맹세하였다. 그리고 최고지도자께 자신의 맹세를 담은 편지를 올리였다. 최고지도자께서는 그 편지에 친필서명하시여 그의 뜻을 격려하시였다. 그 맹세를 지켜 김희련녀성은 머나먼 조국방선초소에서 순간순간 순결한 량심과 성실한 땀을 바쳤다.

김희련녀성의 모습에 고개가 숙어진다. 그 이야기는 온 나라 사람들로부터 진심어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력사와 함께 두고두고 전해질것이다.

《로동신문》에 실린 이 기사를 보면 모든 북녘동포들이 그러하듯이 김희련녀성의 아들도 최고지도자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를 마음속깊이 새기고 자신의 꿈을 설계한것을 알수 있다. 또 김희련녀성처럼 최고지도자께 개인이 자신의 맹세를 스스럼없이 털어놓을수 있고 최고지도자는 그 맹세에 친필서명을 해주시며 격려하시는 독특한 소통방식이 있음을 알수 있다. 서방의 악선전과는 달리 북의 최고지도자와 인민의 관계가 어버이와 자녀사이처럼 신뢰와 존경, 사랑의 관계임을 알수 있다.

북녘동포들이 너도나도 김희련녀성의 소행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그의 정신을 따라배우려고 하는것은 사회전체가 그러한 정신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있기때문일것이다.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김희련녀성과 같은 애국자가 나올수 없다.

서로 믿고 돕는 인간다운 사회, 덕과 정이 흐르는 대가정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북의 사회주의제도는 김희련녀성이 무수히 나올수 있는 좋은 토양으로 된다. 북은 실제로 애국자와 영웅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에 맞서서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고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되는것이 수많은 영웅과 애국자들의 피와 땀이 없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이런 토양에서 김희련이 나온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것이다.

수년전 카나다에서 진행된 어느 한 대회에서 울려나온 네데를란드녀성의 말이 생각난다.

《지금 조선이 아닌 그 어느 사회에 가서 순수한 참된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수 있는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상을 지금 조선사회말고 어디 가서 찾아볼수 있는가.》

나는 그의 말에 완전히 공감한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와 단체의 인사들이 북을 찾고있다. 이들이 북을 찾는 리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인구도 국토도 크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시련과 난관을 뚫고 비약하며 자주성을 지키고있는가를 배우려는것이다.

북은 수령을 중심으로 온 사회가 굳게 뭉쳐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주체의 사회주의나라이다. 이런 좋은 나라가 내 조국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경쟁열의속에 늘어나는 명제품들

—제30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를 돌아보고—

얼마전 평양제1백화점에서 수많은 참관자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제30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인민들이 선호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들어찬 전시회장은 참관자들로 하여 련일 초만원을 이루었다.

이곳에서 만난 경공업성의 한 일군은 소비품생산단위들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지펴올려 보기도 좋고 사용에도 편리한 명제품, 명상품들이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출품되였다고 하면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는 소비품의 품종수를 늘이도록 하는데 전시회의 목적을 두었다고 말하였다.

전시회장은 어느 단위가 인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가를 검증받는 경쟁무대가 되였다.

형제산릉라도피복공장, 수정천피복공장, 애국최종락피복공장, 진성합작회사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보기만 해도 마음을 끌어당기는 남녀고급양복들과 코트, 솜옷, 내의류 등 인민들의 각이한 기호를 반영한 피복제품들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내놓아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레이자빛에 의한 날염생산기술을 도입한 샤쯔천과 같이 현대과학기술과 새로운 착상이 결합된 다종다양한 제품들이 출품된것을 보아도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생산단위들의 열의를 잘 알수 있었다.

서성구역에서 살고있다는 한 남성은 원산구두공장에서 만든 구두는 신기에도 편리하고 맵시있을뿐아니라 가볍고 든든해서 좋다고, 《매봉산》구두에 정이 들었다고, 이렇듯 질좋고 값눅은 《매봉산》구두를 신겠다고 말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평양대홍모피가공교류사에서 만든 고급털모자와 털목도리, 털가죽장갑, 털방석제품들,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만든 소랭이, 장통, 운반통들, 함경남도에서 출품한 가볍고 질좋은 가정용품들, 경성도자기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한 꽃병, 밥사발, 국사발, 화분과 같은 제품들도 인기를 모았다.

화장품분야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경쟁이 활발한 평양화장품공장과 신의주화장품공장전시대들에도 참관자들이 어느것을 골라잡아야 할지 미처 모를 정도로 가지가지의 기능성화장품들이 많이 전시되여 흐뭇함을 자아내게 했다.

식료품전시대에 전시된 제품들도 하나같이 맛이 좋고 보기에도 좋아 수요가 높았다.

종합쵸콜레트, 영양크림단설기, 튀기과자, 대추우유사탕 등 그 가지수를 미처 셀수 없을 정도의 선흥식료공장전시대앞은 참관자들로 흥성이였다.

경흥은하수식료공장과 축전경흥식료공장에서 만들어 출품한 갖가지 제품들도 선흥식료공장제품들보다 결코 짝지지 않았다.

기자와 만난 경흥은하수식료공장 기술준비원은 선흥식료공장을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을 벌리는 과정에 국내에서 우수한 제품들에 수여하는 2월2일제품등록증을 받은 명제품들이 늘어났다고, 특히 소고기맛즉석국수, 김치맛튀기과자와 같은 제품들은 자기 공장을 상징할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말하였다.

해주기초식품공장에서도 민족의 향취가 차넘치는 콩된장, 메주된장, 찹쌀고추장, 마늘고추장을 비롯한 23종의 갖가지 발효식품들을 내놓아 심사성원들을 놀래운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장을 찾은 참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니 정말 없는 상품이 없고 제품의 질도 대단히 높다. 다른 나라 제품들을 넘겨다보지 않게 되였다.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강서약수공장, 와우봉은하가공공장, 은파산무역회사의 전시대 등 어디서나 인민들의 꾸밈없는 이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명제품, 명상품들을 한아름씩 안고 전시회장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자기의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인민소비품들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 서로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생산단위들사이의 경쟁열풍을 고조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랑

제30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에서 참관자들의 가슴을 뿌듯하게 해준것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다양하고 질좋은 제품들이 전시회장을 가득 메운것이였다.

자기 지방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여 만든 갖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보며 참관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봄향기》, 《은하수》, 《옥류》, 《미래》, 《매봉산》, 《봄맞이》, 《철쭉》, 《릉라》, 《금컵》, 《내고향》…

볼수록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우러나오게 해주는 상표들을 꼽으며 참관자들은 저마다 국내산 제품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뭐니뭐니해도 우리가 만든 당과류가 제일이요. 우리 아이들은 꼭 〈금컵〉이나 〈선홍〉상표를 단 당과류만 찾는다오.》

《천연재료를 리용하여 만든 우리의 화장품을 써보니 부작용도 없고 살결도 더 고와진답니다.》

…

참관자들의 얼굴마다에 밝은 웃음꽃을 피워주며 훌륭한 자기의것들을 만들어내는 개발자들을 만나보고싶어 기자는 홍부신홍정보기술교류소전시대로 향하였다.

홍부신홍정보기술교류소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음성으로 모든 조작을 진행하는 지능형수자식액정TV 《소백수》를 비롯한 정보기술제품들을 출품하였다고 한다. 이곳 교류소의 김경국기술원은 자체로 개발한 지능형수자식액정TV에 새로운 기능을 첨부함으로써 음성에 의한 조종이 가능하고 각종 지능오락도 할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새 제품개발이 쉽지 않았겠다는 기자에게 그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 제품을 기어이 만들어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악하게 노력하여 프로그람개발과 제품생산에 성공하였다고 하면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는 첨단정보기술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겠다고 말하였다.

성, 중앙기관 생활필수품생산단위들과 각 도지방공업관리국에서 출품한 소비품전시대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있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가정에서 리용할수 있는 지능형콩나물기계를 내놓았다.

이곳 전시대에서 만난 김경복실장은 지난 시기 이동식대용량콩나물기계를 제작하여 소비단위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이번에 가정용으로도 제작해달라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지능형콩나물기계를 개발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식으로 새롭게 만든 이 제품은 현재 실정에도 맞고 콩나물뿐아니라 록두나물, 무우씨나물, 락화생나물 등 여러 나물을 기를수 있어 누구나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의 전시대에서도 국내산 원료에 의거하여 인민들이 선호하는 여러가지 기능성음료들을 개발하려는 이곳 생산자들의 높은 열의를 엿볼수 있었다.

공장의 홍윤범책임기사는 평양분석기술교류소와 협동하여 록차과일단물, 과일벌풀음료 등 새로운 천연기능성음료들을 내놓았는데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좋아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공장에서 자체로 개발한 여러가지 천연기능성음료들이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이야기하였다.

자기 단위를 상징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가득한 이번 전시회는 자기의것이 제일이라는 긍지를 안고 제힘으로, 자기의 식대로 더 좋은 래일을 창조해나가는 공화국의 밝은 앞날을 그려볼수 있게 하였다.

본사기자 김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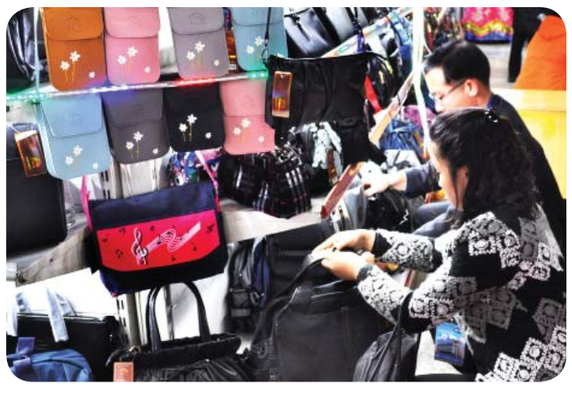
유휴자재로 만든 다종다양한 소비품들

이번 전시회에 큰 투자없이 지방자재와 유휴자재를 리용하여 만든 다종다양한 인민소비품들도 많이 출품되여 눈길을 끌었다.

각지의 수많은 가내작업반, 부업반들에서 기본제품생산과정에 나오는 자투리와 농부산물들을 모조리 회수, 선별하여 일용잡화, 부엌세간, 수공예품, 어린이옷, 놀이감 등을 생산함으로써 쓸모없이 버리던것들을 보물로 전환시키고있다.

지방의 흔한 자재와 쓸모없이 버려지던것들을 리용하여 더 많은 소비품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척되여 인민소비품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는것이다.

평양시지방공업관리국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시안의 가내작업반들과 리용생산반들에서 유휴자재로 만든 수백여점의 생활필수품들을 내놓았다. 기자와 만난 김철준부원은 많은 참관자들이 수공예품, 놀이감, 초물제품들을 저마다 요구하고있다고 하였다.



이곳 관리국의 전시대에는 여러가지 용도의 붓류들과 솔류들, 초물구럭, 초물다반, 초물방석 등 소비품들이 가득 차있었다. 전시된 소비품들모두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소비품들과 견주어도 짝질것 같지 않았다.

향산기념품공장에서 만든 수십종의 적목제품들도 인기를 끌었다.

공장에서는 튐성베개, 방신, 옻그릇, 밥죽, 국자, 저가락, 주전자, 절구 등 수십여가지의 적목제품들을 전시해놓았다.

모란봉구역에서 사는 정윤희녀성은 《가정에서 오래전부터 살균작용이 강한 적목으로 만든 주방도구들을 리용해오고있는데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하면서 얼마전에 시집을 간 딸한테도 적목으로 만든 밥죽과 국자, 저가락을 사주려 한다고 말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대양정보기술교류사에서는 산축전지의 성능과 수명, 품질을 지켜주는 지능화된 산축전지보호기를 출품하였다.

산축전지를 오래동안 리용하면 극판사이에 류산염결정피막이 쌓이게 되며 그것이 한계점을 넘으면 축전지의 성능이 떨어져 리용할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장치를 새 축전지에 련결하면 그로부터 충격임풀스가 나오면서 축전지의 극판사이에 염결정피막이 생기지 않게 하여 축전지내부에서 량극판과 류산의 화학반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다고 한다.

산축전지보호기는 가정들만이 아닌 산축전지를 리용하는 모든 륜전기재들에서 아무런 지장없이 사용할수 있다고 한다.

국흥무역회사에서는 쓸모없어 버려지던 강냉이오사리를 리용하여 방신, 운동신, 구두, 끌신을 비롯한 수많은 초물제품들을 만들었는데 종류가 다양하고 질이 매우 좋았다. 강냉이오사리로 만든 신발은 바닥이 매끈하지 않을뿐아니라 일정한 발안마작용도 하는것으로 하여 건강에 유익하다고 한다.

소백수수지일용교류사에서 재생수지로 만든 소랭이, 바께쯔, 비자루, 빨래판, 윷놀이알, 화분대들도 볼만 하였다.

유휴자재로 만든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은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것으로 하여 전시회기간 참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본사기자 김영춘

각종 로보트들을 연구개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로보트의 역할은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령역에서 더욱 커지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소재공급로보트, 용접로보트와 조립로보트를 비롯한 각종 공업로보트들이 연구개발되였고 그를 포함하는 유연생산세포들과 유연생산체계들이 수많은 공장들에서 적극 리용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인간형로보트를 비롯한 지능로보트의 개발이 적극 추진되고있으며 여러 대학들에서 로보트축구경기 등이 광범히 진행되여 대학생들속에서도 로보트개발과 그 조종기술에 대한 탐구열의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최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기관차라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로보트개발 및 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기계과학기술학부안의 교원, 연구사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민경제의 정보화, 현대화실현에 절실히 필요한 생산공정의 로보트화를 실현하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이 과정에 강좌에서는 6자유도병렬로보트, 홍남제련소 로보트화된 프레스작업세포, 병렬로보트작업세포 등 많은 공업용로보트들을 제작하여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도입하였다.

기자와 만난 박사 부교수 량시호선생은 《설계, 제작, 조정에 이르기까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6자유도병렬로보트는 생산공정 및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이곳 기계전자공학강좌에서는 학술형인재, 실천형인재양성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교육사업에서 실험실습의 비중을 높이고 실천교육을 통한 교수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실험실습은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교수형태이다.

강좌장선생의 말에 의하면 학부에 꾸려진 로보트연구소조가 활발히 운영되고있으며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학생들이 자체로 구상하고 설계하고 조종까지 직접 해보게 함으로써 실체험속에서 경험을 쌓고 더욱 폭넓은 지식이 다져지게 한다는것이다.

결과 전국적으로 진행된 로보트축구경기를 비롯하여 기술대학부문 대학생들의 여러 경연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한다.

로보트공학강좌에서도 병렬로보트 운동특성실험기구, 소형관절로보트, 평양버섯공장의 버섯기질상자이적로보트, 평양화장품공장의 노즐마개공급로보트 등을 개발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강좌에서는 지난 기간 교육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로보트공학과목을 비롯한 여러개의 전공과목들을 새롭게 내오고 교육을 진행하고있다.

우리와 만난 기계과학기술학부의 한 일군은 앞으로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각종 로보트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여 현장에 도입하며 인민경제의 모든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다지였다.

오현주

조선옷의 아름다운 색조화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색이 진한것보다 연하고 부드러우며 선명한것을 좋아하였다.

그리고 주로 흰색과 옥색, 연분홍색과 같이 색이 연하면서도 밝고 부드러운것을 옷색갈로 리용하였다. 또한 연하면서도 부드러운 중간색도 많이 리용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여러가지 중간색을 만들어 리용하였는데 대체로 붉은색계통의 색갈, 보라색계통의 색갈, 누런색계통의 색갈, 풀색계통의 색갈 등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녀자들은 계절적 특성에 맞게 따뜻한 봄날에는 은근하면서도 밝은 색갈인 연분홍색, 연록색, 미색계통의 옷을 많이 입었으며 무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색갈인 옥색과 연한 푸른색계통의 옷을 즐겨 입었다.

웃옷과 아래옷으로 구성된 조선옷은 색조화를 다양하게 할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우리 선조들은 조선옷을 입을 때 저고리와 아래옷의 색을 서로 다른 색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색조화를 줌으로써 옷차림을 다양하게 하였다.

특히 녀성들은 치마저고리를 입을 때 단색옷보다도 치마와 저고리의 색갈이 서로 다른 옷차림을 하는것을 즐겨하였다.

조선녀성들은 《록의홍상》, 《황의홍상》, 《황의청상》차림을 명절옷차림이나 의례옷차림으로 즐겨 리용하였다.

특히 《황의홍상》차림은 자연색 그대로의 밝은 노란색과 산뜻한 맛을 주는 붉은색의 대비를 통하여 이루어진 화려하고 청신한 색채조화로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미적정서를 훌륭히 나타내였다.

남자들은 주로 흰색이나 옥색과 같은 비교적 밝은색으로 된 단색의 옷을 많이 입었다. 웃옷과 아래옷의 색조화를 하는 경우에는 연한 밤색이나 연푸른색, 푸른색, 회색 등의 저고리에 밝고 부드러운 색갈의 바지를 즐겨 입었다.

조선옷은 부분별요소들의 색조화로도 아름다움을 나타낼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녀성들의 저고리에서는 고름, 소매끝동 등을 저고리의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처리하여 색채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옷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이러한 저고리들은 일반저고리에 비하여 화려하였으므로 명절옷이나 의례옷으로 많이 리용하였으며 일상옷으로도 입었다.

본사기자

다양한 에네르기자원 개발리용

공화국에서 다양한 에네르기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다양한 에네르기를 리용한 발전능력이 수만kW 늘어났다.

그중 태양빛발전능력은 86%이상, 생물질과 석탄가스화에 의한 발전능력은 각각 7.7%이상, 4.7%이상이다.

다양한 에네르기자원개발실태를 지역적으로 보면 평안남도와 황해북도가 총발전능력의 각각 15.4%, 14.9%로서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평안남도체신관리국아래 모든 시, 군체신소에서 석탄가스화에 의한 전력생산체계를 확립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해결하고있으며 황해북도의 여러 시, 군에서는 태양빛과 생물질을 리용한 발전능력조성사업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평양시 대성구역의 일부 주민세대들에서도 태양빛발전체계에 계통병렬형역변환기술을 받아들여 국가전력망과의 유기적인 결합밑에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실리적이며 전망성있는 다양한 에네르기자원의 개발리용사업은 국가적인 조치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더욱 활발해지고있다.

본사기자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도자기제작기술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우수한 도자기제작기술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신석기시대 조선옛류형사람들은 빗살무늬그릇(새김무늬그릇)을 비롯한 여러가지 토기를 많이 만들어 생활에 리용하여왔다.

고대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돌림판에 의한 성형방법과 틀빼기에 의한 성형방법, 가마에 의한 소성방법을 리용하여 도자기생산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발로 축을 돌리면서 두손으로 그릇형태를 빚는 돌림판에 의한 성형방법과 일정한 모양의 형틀우에 천을 씌운 다음 흙을 발라 뽑는 방법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틀빼기성형방법은 이전시기에 손으로 빚어만들던것에 비하여 훨씬 능률적이면서도 질그릇을 손쉽게 대량적으로 만들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잘 정선된 보드라운 점토로 그릇모양을 빚고 가마안의 밀폐된 환경에서 1 100℃이상의 높은 열로 굽는 소성방법은 이전시기의 토기를 도기로 발전시켰다.

중세시기에 들어와 우리 선조들은 고려청자기와 분장자기, 조선봉건왕조백자기와 같은 세계적인 도자기를 만들어냈다. 세나라시기에 유약을 창안하고 여러가지 색갈의 유약도기를 만들어내였으며 그것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청자기와 백자기제작기술을 확립하였다.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 도자기제작기술은 더욱 발전되였는데 유명한 《발해삼채》로 불리운 도기는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고려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세계도자기공예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고려자기를 만들었다. 중세시기 조선의 비단과 도자기, 종이, 먹, 부채, 돗자리, 인삼 등이 이웃나라들에서 《천하의 명물》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고려자기는 명성이 자자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고려후반기에 출현한 분장자기제작기술과 세나라시기부터 발전하여온 백자기제작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우수한 분장자기와 백자기를 만들어 리용하였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기풍 등이 반영되여있는 전통적인 도자기제작기술은 오늘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본사기자

여러가지 도자공예품들을 창작한다.

—만수대창작사에서—

살림집례절

예로부터 례의도덕이 밝은 민족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민족은 살림집을 짓고 사는데서도 사람들사이에 고상한 례의범절을 지켜왔다.

우리 선조들은 이웃에서 살림집을 짓거나 집들이를 할 때 온 마을이 떨쳐나와 도와주는것을 례의도덕으로 지켜왔다.

사람들은 마을에서 어느 한 가정이 살림집을 지으면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으며 그렇게 하는것을 례절로 여기였다. 살림집이 완공되여 집들이를 할 때에도 마을사람들은 모두 떨쳐나와 이사짐을 날라주면서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었다.

우리 선조들은 방안출입과 리용에서도 례절을 지켰는데 방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신발을 밖에 벗어놓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며 밖으로 나올 때에도 역시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그리고 방을 리용할 때에는 방의 뜨뜻한 아래목은 웃어른들에게 권하고 젊은 사람들은 웃목이나 웃방에 자리를 잡는것을 례절로 여기였다.

이웃집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밖에서 주인을 찾고 응답이 있을 때에만 집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나누었다. 방에 들어가서는 주인이 권하는데 따라 자리에 앉아서 용무를 보았다. 이것은 이웃간에 서로 존경하며 신의를 두터이 하는것을 고상한 품성으로 여긴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례절이였다.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것을 례절로 여기는 우리 선조들은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반드시 일어서서 맞이하였으며 방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권하였다.

그리고 손님이 짐을 들고 왔으면 짐을 받아주고 겨울에는 솜옷 같은것을 받아 일정한 장소에 걸어주는 등 찾아온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는것을 응당한 례절로, 보통현상으로 여기였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살림집생활에서도 고상한 례의범절을 창조하고 오랜 력사적기간 계승해왔다.

본사기자

애국적인 언어학자 주시경

주시경(1876—1914)은 애국적언어학자이며 교육자이다.

고향은 황해도(당시) 봉산이며 다른 이름은 주상호이다.

가난한 선비가정에서 태여나 13살때 고향을 떠나 양아버지가 사는 서울에서 한문과 유학공부를 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한문대신 우리 글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기 쉽고 쓰기에 편리하게 다듬을것을 결심하였다.

그후 배재학당에 들어가 신학문을 공부하면서 국문통일운동을 발기하고 학생들속에서 《동문동식회》를 조직하고 국어의 보급과 연구를 조직지도하였으며 독립신문사에서 애국적인 문필활동도 벌리였다.

1904년부터는 서울보성학교와 상동학원에 국어일요강습소를 내오고 그것을 거점으로 서울시내의 청년학생들에게 국어교육을 진행하였다.

1906년 10월 박은식과 함께 《서우학회》를 조직하고 이 단체의 기관잡지 《서우》를 발간하고 운영하는 사업에 참가하였다.

1907년 하반기부터 《대한협회》의 교육부책임자,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국어와 국문의 필요》, 《국어문전음학》, 《국어문법》 등 많은 책과 론문들을 써서 학생들과 인민들속에 국어를 보급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그가 항상 책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닌다고 하여 《주보따리》라 불렀다고 한다.

그는 일제의 탄압속에서도 조선어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조선어강습원》을 조직하여 청년들과 인민들속에서 반일애국사상을 고취하며 우리 말과 글을 옹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힘썼다.

그의 저술들은 《주시경유고집》에 수록되여있다.

본사기자

사화

만리이역에 가서…(2)

글 조허림, 그림 리성일

홍도사는 문견도 넓고 서화부문에도 일정한 조예를 가지고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나라에 가서 한다하는 고관이나 명사들과 접촉하여 외교도 하고 장사도 하는 사신의 수원으로 아예 뽑히지를 못한다.

그러한 홍도사인데도 송석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잠시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송석이 주는 부채를 넘겨받아 그가 말한대로 반쪽을 펼쳐보았다. 순간 그는 놀랐다. 진한 청색과 산뜻한 다홍색으로 곱게 입힌 물새의 날씬한 몸매며 새별같이 또렷또렷한 두눈이 금시 깃을 치며 날아갈듯 생동하였다. 그는 얼른 그편을 접고 다른 한편을 펴보니 역시 방금 날개를 벌리고 날아갈듯한 물새의 산 움직임이 완연하였다.

홍도사는 비로소 송석의 말뜻을 알았다는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하— 참, 과연 신묘한 명화요. 자, 내가 래일 떠나게 되여 오늘은 바빠서 더 말 못하겠소마는 래년 봄에 다녀와서 다시 찾아오겠소.》

먼길가는 손을 떠나보내고나서 송석은 그동안 그림그리기에 전심전력한 피로를 못이기는듯 드러누워 스르르 눈을 감는데 그의 얼굴에는 이번 그림이 자기 일생에 처음보는 회심의 작품같이 느껴져서인지 미소가 어리여있었다.

홍도사는 분주히 길 떠날 차비를 해가지고 그 이튿날 사신일행에 섞이여 말을 타고 여러날만에 북경에 당도하였다. 홍도사는 주로 장사를 담당한 수원이였다. 하기에 그쪽 장사치들과의 접촉이 많았다.

사신일행의 도착을 기다리고있던 그쪽 상인들이 와— 하고 달라붙어 홍도사가 가지고 갔던 홍삼을 비롯한 우리 나라 특산물을 사가고 자기네 진귀한 물건들을 파는 바람에 홍도사는 긴요한 볼일들을 며칠사이에 거의 끝마쳤다. 그리고 그는 북경바닥의 큰 상인들을 비롯하여 여러 명사들을 만나 그곳 형편도 듣고 조선이야기도 해주는 외교적접촉을 계속하였다.

그럴 때면 그는 반드시 부채를 들고다니며 은근히 자랑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하루는 남경에서 대상인을 만나서 그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는 홍도사의 부채를 유심히 보더니 흥분된 어조로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여보시오, 우리가 초면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귀객이 가지신 부채의 그림이 참 신묘하오. 기념으로 은 5천냥을 드릴터이니 그 부채를 내게 주시오.》

(그림 한장에 5천냥이라니?)

홍도사는 하마트면 입을 쩍 벌릴번 하였다. 그러나 용히 참았다.

홍도사는 놀랐지만 남경상인이 부른 금새는 응당한것이였다. 우선 그 나라에는 그런 그림이 없었다. 실은 거기에서도 우리 나라 도화서에 몰켜있던 화가들이 그린것과 같은 고루한 서푼짜리 수묵화나 도식적인 그림들이 판을 치고있었다.

당시 그 나라에도 현실에 발을 붙이고 진실을 탐구하여 그리는 새로운 화풍이 움트고있었지만 그것은 아직 요람기였다.

그러한 때 송석의 선진적인 화풍에 의한 로숙한 솜씨의 걸작품이 나타났으니 눈밝은 그 상인이 황홀하여 솔직하게 금새를 놓았던것이다.

홍도사도 그 그림이 잘된것쯤은 짐작하고있었으나

5천냥이나 금새가 나갈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림이야 화가 송석이가 살아있으니 얼마든지 또 그릴수 있지 않는가. 송석은 살림이 군색한터이니 5천냥의 대금을 받아다주면 그에게도 여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에 홍도사는 흔연히 그가 부른 값으로 부채를 팔아버리였다.

남경상인은 기뻐서 몇번이고 고맙다고 머리까지 굽신굽신하더니 홍도사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니 래일 강으로 배놀이를 가자고 초청하였다.

그 이튿날 배놀이가 시작되였다.

모두들 시원한 강바람을 쏘이고 노래도 부르며 흥이 한창 고조되여갈 무렵 남경상인은 들었던 그 부채의 한편을 펴는것이였다. 순간 부채우에 그려졌던 그 고운 물새가 포르르 깃을 치며 날아나와 물속에 들어가더니 눈부신 진주 한알을 물고 나오는것이였다.

그러자 배놀이하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래지며 《야! 야!》 하고 경탄의 환성을 련발하는것이였다.

모두들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남경상인을 둘러싸고 부채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벌어졌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온 장안을 들었다놓았었다.

이때 누구보다도 눈을 크게 뜨고 경탄한것은 홍도사였다.

그는 부채그림이 잘 그려져서 한번 뽐내리라 기대는 가졌었지만 이렇게까지 조화를 부리리라고는 뜻밖이였다.

그는 부채를 판것이 몹시 후회되였다.

그러나 기왕 팔았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돌아가면 송석에게 청해서 그림을 짐으로 받아가지고 한번 뽐내며 크게 장사하리라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야속한것은 세상일이였다.

가난에 몰리는 사람들은 숨가쁘게 쫓기우다가 어푸러져 코가 깨지고 팔다리도 상하여 때로는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것이다.

극빈하고 마음 깨끗한 송석의 운명도 그러한 잔혹한 비극의 손아귀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유모아

눈앞의 일

어린아이가 길에서 흙으로 성을 쌓고 놀고있었다.

이때 한 량반이 말을 타고 가다가 길을 비키라고 하였다.

아이: 《말이 성을 피해가야지 성이 말을 피하는 법도 있소이까?》

량반: 《네가 어린아이로 어떻게 그런걸 아느냐?》

아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리치는 리치이니 물을것이 있소이까?》

량반: 《그러면 네가 하늘도 아느냐?》

아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압니까? 눈앞의 일도 자세히 모르는데…》

량반: 《눈앞의 일이야 어찌 모를리가 있느냐?》

아이: 《그럼 어르신님은 눈앞의 일을 아십니까?》

량반: 《그런거야 모르지 않지.》

아이: 《그러면 어르신님의 눈섭이 몇오리오이까?》

량반: 《…》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